

# 정원, 가을에 물들다...순천만정원박람회 후반전도 순항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 571만 관람객을 유치해 목표의 73%를 달성하며 순조롭게 가을 성수기 채비를 하고 있다. 순천만국제정원을 찾은 구름 인파.

### 4월 개막 후 8일까지 571만명 방문... '800만' 목표의 72.6% 달성 9월 팬텀싱어 우수 라포엠... 10월 미스터트롯·2000년대 가수 공연 노을정원 등 국화 26만그루 식재... 10일 오후 1시까지 임시 휴장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목표 방문객의 7부 능선을 넘어 하반기에도 순항하고 있다. 9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개막한 박람회는 이달 8일 기준 571만명의 관람객을 불러모으며 목표 800만명의 72.6%를 달성했다. 입장권 판매액(181억원·8월6일 기준)을 포함한 관람객들이 박람회장에서 쓴 직접 소비액은 256억원에 달한다. 이는 애초 목표액보다 3억원을 초과 달성한 금액이다. 가을 성수기를 포함해 박람회 폐막까지 남은 80여 일간 수익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원박람회는 개막 첫날 15만5000명의 인파가 몰렸고, 12일 만에 100만 관람객을 달성했다. 개막 84일 차인 지난 6월23일에는 500만 관람객을 돌파하며 순항을 이어갔다. 가장 많은 관람객을 운집한 날은 19만1959명이 찾은 지난 4월15일이다. 박람회 조직위는 지난 6월 달간 치른 박람회 성과를 점검하고 전반전보다 흥미로운 박람회 '후반전'

만들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원, 가을에 물들다'라는 주제를 내건 정원박람회는 늦여름에서 가을 사이 정원의 매력을 뽐낼 예정이다. 추석 연휴가 있는 9월에는 가을 분위기과 어울리는 다양한 문화 공연이 마련된다. 우선 TV 경연 예능 '팬텀싱어'에서 우승한 '라포엠'과 가수 이승환이 박람회 무대에 오른다. 오케스트라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 공연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또 박람회 주제공연 '카이로 스-습지의 어벤저스'가 다시 어린이 관객을 만난다. 오는 10월에는 TV 경연 '미스터트롯' 출연진과 2000년대 인기 가수들의 공연, 마당놀이극 '최진사댁 셋째딸 신랑찾기' 등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된다. 가을에는 정원박람회가 국화로 물든다. 조직위는 다음 달 중순부터 노을정원, 나르샤정원, 네덜란드정원, 오천그린광장 일대에 국화 26만



순천 오천그린광장에 모인 관람객들이 지난 4월 무료로 열린 YB 공연을 즐기고 있다.

(순천시 제공)

그루를 심어 풍부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정원 도시의 이상향을 선보이는 순천을 배우기 위한 발걸음은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 기관과 단체 등 290여 곳이 공식적인 방문을 통해 정원박람회장을 다녀갔다. 지난 5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이 박람회장을 찾았고, 권영걸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6월), 박형준 부산시장·김동연 경기도지사(7월) 등도 방문했다. 도심 녹지비율을 높이기 위한 순천의 노력을 뒤

따르는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는 오는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열고, 부산시는 삼락생태공원 일대를 '낙동강 지방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거제도도 대한민국 3호 국가정원을 목표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대한민국 전체가 정원에 관심을 두고 맑고 밝은 녹색 도시로 바뀌어 간다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하고도 고무적인 일"이라며 "국내 최초로 정원박람회를 열고 두 번이나 성공적으로 치러낸 순천을 찾아 운치 있고 고즈넉

한 가을정원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정원박람회는 9일 오후 6시부터 10일 오후 1시까지 임시 휴장한다. 임시 휴장 기간은 기상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박람회 조직위는 '가든스테이 실랑계' 9일 숙박 예약을 취소하는 등 예약 방문객들에게 양해를 구해놓았다. 같은 기간 '정원드림호'와 오천그린광장 '워터 아일랜드'도 운영을 중단한다. 박람회 조직위는 안전요원 60여 명과 안전 조치에 나서며 태풍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고흥군 신축 아파트·노후 건축물 특별점검 나서

### 입주 완료 3곳·신축 아파트 주차장 '무량판' 없어 고흥군, 민간 공동주택 2곳 시공 기준 준수 지시

고흥군이 부실시공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재 지역 내 건축 중인 신축 아파트 및 노후 건축물에 대해 특별점검 및 민관감리에 나섰다. LH가 발주하고 시공능력 평가 5위인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 집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관련 국토부 사고조사위 조사결과 문제의 아파트 구조는 무량판구조로 대들보 없이 기둥만으로 콘크리트 천장(슬래브)을 지지하는 구조로서 설계, 시공, 감리 등 전반적인 부실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흥군은 이와 같은 사고가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건설 공사 중에 있는 민간 공동주택 아파트 2개소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강도 및 양생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공사감리 및 시공사에 지시했다. 지난 7월 전남도와 민·관 합동(4명)으로 신축 아파트(2개소) 시공·감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안전 점검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입주 완료한 아파트 3개소와 신축 중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무량판구조가 아닌 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한 하중 전달구조)이다. 고흥군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다중이용 건축물, 공동주택 등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 3년마다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따라 20세대 이상은 공용 시설보수와 안전 점검을 20세대 이하의 안전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김동현 고흥군 종합민원실장은 "건축물 전반에 대하여 설계부터 시공 및 감리에 이르기까지 부실로 인한 사고가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확인 행정이 필수적"이라며 "군민이 불안해하는 안전사고가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 광양시, 동천 경관광장 조성 박차

### 내년 5월까지 토지보상 마무리 녹지·산책·힐링·친환경 편의시설 동~서천 잇는 녹색도시 디자인

광양시가 광양을 동천과 연계한 대규모 공원, '동천 경관광장' 조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천 경관광장 조성은 용강리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다. 이곳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구 대비 부족한 녹색공간과 동·서천을 연결하는 휴식공간이 조성된다. 동천 경관광장은 광양읍 용강리 820-1 일원에 면적 2만 3863㎡에 달하는 대규모 광장이다.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40억원, 공사비 75억원 등 모두 118억원이 투입된다. 기존의 동천을 활용해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산책과 힐링 공간이 어우러진

친환경 편의시설을 조성해 특화된 휴게공간을 만든다. 인근에는 목성리와 닿을 수 있는 보도교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내로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를 완료하고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을 거쳐 편입토지 26필지, 지장물 64건에 대해 1·2차분으로 나눠 2024년 5월까지 토지 손실보상을 마칠 계획이다. 김재원 광양시 공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동천과 서천을 잇는 자연스러운 녹색도시 디자인을 통해 인근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경관과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순천철쭉, 전국 첫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순천철쭉'이 전국 최초로 특허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됐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해당 지역의 특산물, 문화유산, 자연경관 등 지리적 특성과 가치를 공인하는 중요한 인증 기준으로 그 지역의 특산물 생산(가공)자 단체에게 독점적 배타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순천시시는 연평균 기온 13.8도로 온난하고 배수성이 우수한 토양을 가지고 있어 철쭉류가 생산되기 알맞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내 철쭉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 생산지이며 지역내 조정수 생산 농가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다. 이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순천 정원수 생산자 단체인 순천정원문화산업발전협의회(대표 신춘호)는 '순천철쭉'의 특허권 자로서 특산물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철쭉 재배품종 영산홍, 백철쭉.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순천철쭉의 명성을 인정받게 돼 브랜드화와 품질향상을 통해 지역 철쭉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철쭉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순천에서 생산되는 철쭉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지역 생산농가들과 함께 순천철쭉을 적극 홍보하고 차별화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지속 가능한 정원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이 다음 달까지 12개 읍·면 방역 기동반을 꾸려 여름철 방역·소독을 한다. 벌교읍 장도리 선착장 인근을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모습. (보성군 제공)

## 보성군, 내달까지 집중 방역·소독 실시

보성군은 장마철이 끝나 지역의 유일한 섬 벌교읍 장도리(대촌·부수) 197세대를 대상으로 방역 소독을 했다고 9일 밝혔다. 보성군은 다음 달까지 12개 읍·면 방역 기동반을 꾸려 집중 방역·소독을 할 예정이다. 벌교읍 장도리에는 197세대 301명이 거주하고 있다. 벌교읍 행정복지센터는 여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장마가 끝나자 방역을 벌였다. 13.8km 해안 들레길과 장도리 선착장, 하천,

포수, 웅덩이, 굴터 등 해충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방역했다. 주민들에게는 해충 연막용 살충제와 기피제 등 방역물품을 보급했다. 보성군은 수인성 감염병 집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감시·관리할 방침이다. 선남규 벌교읍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을 잘 씻고 안전하게 물·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며 "감염병 취약지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방역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은중 기자 kyb@

## 건강한 마음이 자라다

### 곡성군, 삼기초 학생 대상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곡성군은 삼기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수업인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진) 마음건강 수업은 '건강한 마음이 자라다'라는 주제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했다.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총 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기 위한 과정을 펼쳤다. 공동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차이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긍정적인 태도 기르기, 감정 표현 조절하기 등을 익혔다. 마지막으로는 갈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앞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



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종합심리검사비 지원, 마음건강 상담 등을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061-363-99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